

선군시대 인민군대가 군민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끄신 위대한 령도

김 정 북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의 전통을 이어 서로 어깨를 결고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항일빨찌산의 전통을 이어 군민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데서도 언제나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단행본 11페이지)

군대는 원민을 하고 인민은 원군을 하며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빛나게 실현하여 천만군민의 일심단결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이고 확고한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그 시원이 열리고 우리 혁명의 자랑찬 년대들을 거쳐오면서 철통같이 다져진 우리의 군민일치는 선군시대에 이르러 승고한 높이에서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선군시대 인민군대가 군민대단결을 다지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답게 군민일치실현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신것이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며 제국주의와 맞서 혁명의 제1선을 지켜선 가장 위력한 전투대오이다.

혁명투쟁에서 군대와 인민의 불가분리적관계는 주권전취를 위한 시기에나 사회주의건설시기에나 달라지지 않으며 오

히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군민관계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4(2005)년 7월 어느 한 전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둔지역의 영농사업을 잘 도와주고있는데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좋은 일이라고, 군대는 응당 그래야 한다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일군들에게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라고 하시며 군민관계에서 원민이 첫째이고 그 다음 원군이라고, 원민을 하는것은 인민군대의 본분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속에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이고 핵심부대로서의 인민군대가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군대에 이런 애민, 원민의 미풍을 활짝 꽃피워주시였기에 온 나라에 원군기풍이 차넘치고 우리 사회의 밑뿌리는 영원히 드높지 않으며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이 백배해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삼복더위가 한창때인 주체96(2007)년 7월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과정에 어느 한 도로를 건설한 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게 되시였다.

이 도로는 한해전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이 힘을 합쳐 짧은 기간에 건설한 도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도의 한 일군을 부르시고 도에서 도로건설을 아주 잘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건설정형을 알

아보시였다.

이날 도일군들은 도로를 건설하는데서 사실 인민군대가 주동이 되어 돌과 구를 열었다고 하면서 인민군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공사를 제기일안에 할수 없었을것이라고 말씀올리였다. 그런가하면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은 또 그들대로 도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다 맡아 건설하였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수고를 모두 도인민들에게 양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도로건설에 바친 그들의 수고와 함께 좋은 일이 생길수록 군대는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은 군대를 먼저 위해주는 그 마음이 더없이 기특하게 여겨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인민군대가 군민일치실현에서 주체가 되어 원민의 숭고한 모범을 계속 창조해나가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96(2007)년 8월 우리 나라에서는 100년래에 처음보는 폭우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자연재해를 크게 보게 되였다.

도로와 다리, 공공건물, 살림집들이 수많이 무너지고 논과 밭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삼복철강행군으로 함경남북도와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련속되는 현지지도를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큰물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제일먼저 인민군군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자연재해를 이겨내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마땅한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련이어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군인들은 비상회의를 열고 큰물피해로부터 인민의 리익과 생명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었으며 인민들과 힘을 합쳐 힘겨운 전투

를 벌려나갔다.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주고 큰물피해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하고있는 영웅적소행자료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큰물피해복구와 도로보수공사에 동원된 인민군대가 일을 잘한다고 하시며 그들이 발휘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우리 나라와 같이 군민관계가 좋은 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높이 발휘되고있는 군민관계의 좋은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계속 빛내어나가는데서 인민군대가 언제나 앞장에 설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은 인민군대의 근본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성적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100(2011)년에도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더 잘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100(2011)년 5월 군인건설자들이 건설한 룡림언제를 찾으시여 그곳 군인들이 발전소건설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그곳에서 살게될 인민들을 위해 마련해놓은 건설물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고 거듭거듭 치하를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룡림언제를 건설하면서 절약한 자재로 룡림언제로부터 전천읍까지의 도로포장공사까지 잘해줄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기 전까지만하여도 부대일군들은 자기들이 인민군대답게 인민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찾아하였다고 은연중 자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 산중의 호수에서 즐거운 휴식을 하며 찾아올 인민들에게 번듯한 행복의 대통로를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접하는 순간 인민군군인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는 만족을 몰라야 한다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뜨거운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군군인들은 인민들이 군대의 위훈을 두고두고 이야기할수 있게, 인민들의 인상에 남을수 있게 한가지라도 더 해놓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그해 전승절전으로 전투명령을 기어이 관철함으로써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인민군군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 침전지공사를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단숨에》 정신을 발휘하여 단 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제끼 기적도 있으며 만포시와 중국 집안시를 련결하는 도로건설과 우리 나라와 중국을 련결하는 다리건설과정에는 군대와 인민들사이에 오가는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들이 수놓아져있다.

이렇듯 인민군대를 군민일치의 주체로 내세워 군민대단합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일치는 더 한층 다져지고 인민을 돕기 위한 인민군대의 원민활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었다.

선군시대 인민군대가 군민대단결을 다지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도록 이끌어주신것이다.

인민군대가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자

기의 사명과 본분을 언제나 잊지 않고 모든면에서 인민의 거울이 되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며 특히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로력적으로 잘 도와주는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6(2007)년 11월 어느날 인민군대에서 군민관계를 더욱 개선강화해나가기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전에는 겨울철이면 동해안지대와 평양시의 곳곳에서 그리고 역전과 렬차칸들에서 동해의 특산물인 털게를 많이 팔았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밤과 고구마를 생산하여 평양시에 보내주고 있는데 털게까지 잡아보내주면 평양시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군대에서 평양시민들에게 철따라 첫물과일들을 공급해주도록 은정넘친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언제인가는 인민군군인들이 마련한 고구마와 밤을 수도의 곳곳에서 인민들에게 팔아주도록 해주시더니 오늘은 또 동해의 특산물로 소문난 털게를 평양시에 보내주어 시민들이 맛보도록 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뜨거운 걱정속에 받아안은 동해안지구의 인민군부대들에서는 곧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줄 털게잡이전투를 벌렸다.

우리 군인들의 헌신적인 로력에 의하여 마련된 털게가 다음해 1월과 2월에 수도의 상업봉사망들에 집중수송되었으며

시민들은 군인들의 지성이 깃든 수산물을 받아안고 또 하나의 인민의 행복을 창조한 군인들의 높은 정신세계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주체96(2007)년 12월 어느날 어느한 인민군지휘부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그곳 부대군인들이 주변산들에 왕밤나무를 많이 심은것을 료해하시고 앞으로 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들이 원민미풍을 더 높이 발양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계속 잘해나가도록 하시는 한편 군인들속에서 원민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교양사업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

게 잘해나가도록 커다란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로 인민군대의 모든 중대교양실들에는 인민을 돕자라는 제목의 교양판이 새로 생겨 군인들속에서 인민을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는 미풍이 활짝 꽃피어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에서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활짝 꽃피나 군민대단결이 선군조선의 참모습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민이 하나로 뭉친 강력한 힘으로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반드시 빛나게 열어나갈것이다.